

寒疝에 對한 文獻的 考察

閔 庚 勳 · 卞 一*

I. 緒 論

疝症은 韓醫學 古典인 《黃帝內經》에 記錄이 나타나는 疾患으로 〈素問：至眞要大論〉²¹⁾에서는 “太陰在泉，主勝則寒氣，逆滿飲食不下，甚則疝”이라 하였고, 〈素問：骨空論〉²²⁾에서는 “任脈爲病，男子內結七疝，女子帶下瘦聚”하였고, 〈素問：大奇論〉²³⁾에서는 “三陰急爲疝”이라 하여 그 原因을 밝혔으며, 〈素問：長刺節論〉²⁴⁾에서는 “病在少腹，腹痛不得大小便，病名曰疝，得之寒”이라 하여 病的 原因과 所在, 症狀에 對해 言及한 以後 歷代醫家들에 의해 그 原因과 症狀, 治法, 治方이 提示되어 온 疾患이다.

寒疝은 疝症의 한 分類로서 七疝中에 代表的인 位置에 있어 《醫學綱目》¹²⁾에서는 疝名이 有七種이지만 寒疝이 疝의 總名이 된다고 하였다.

寒疝에 對한 最初의 具體的인 記錄은 《金匱要略》²⁴⁾에 나타나는데 寒疝의 症狀은 “繞臍痛，若發則自汗出，手足厥冷，其脈沈緊” “腹中痛 脇痛裏急”이라 記錄되었으며, 張²²⁾은 《儒門事親》에서 寒疝에 對하여 “囊冷結硬如石，陰莖不舉，或控舉丸而痛，得於坐臥濕地，或寒月涉水，或值雨或坐臥磚石，或風冷處，使內過勞，宜以溫劑下之，久而無子”라 하여 그 原因, 症狀 및 治法과 豫候까지 言及하였다.

寒疝의 症狀과 類似한 西洋醫學的 病症은 精囊炎, 副睪丸炎, 睪丸炎, 精系捻轉 등의 生殖器系 疾患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은 解剖學的 構造와 位置上 서로 聯關되고 隣接되어 있기 때문에 相互 轉變이 잘 일어나 西洋醫學에서도 한 部類로 看做하고 治療하는 바가 대개의 境遇이다.

筆者는 寒疝이 七疝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位置를 차지하며, 이에 대한 諸家들의 說에 一定한 認識差가 나타나는 것에 注目하여 韓醫學 歷代文獻에 나타난 寒疝의 原, 症, 治에 對하여 考察한 結果 다음과 같은 知見을 얻었기에 報告하는 바이다.

*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內科學敎室

II. 本 論

1. 寒疝의 原因

《黃帝內經》에서는 疝證을 原因과 症狀에 따라 17種으로 區分하였으나, 이 중에 寒疝에 對한 仔細한 內容은 言及되지 않았으며, 단지 〈素問·長刺節論〉²¹⁾에서는 “病在少腹, 腹痛不得大小便, 病名曰疝, 得之寒”이라 하여 寒疝의 原因과 症狀에 類似한 內容을 言及하고 있다. 巢¹⁴⁾는 最初로 七疝을 具體的으로 區分하여 寒疝을 七疝에 包含시켰고, “陰氣積于內”를 寒疝의 原因으로 보았으며, 王¹⁸⁾은 “得寒冷食輒劇”을 寒疝의 原因으로 보았다.

張²²⁾은 巢¹⁴⁾보다 더욱 具體的으로 寒疝의 原因을 言及하였는데, 原因으로 “得之于坐臥濕地 寒月涉水 或值雨雪 使內過勞”이라 하여 內傷房勞, 外侵寒濕으로 寒疝이 發生한다고 보았다. 以後樓¹²⁾, 虞¹⁶⁾, 許⁷⁾, 李¹⁹⁾, 吳¹⁵⁾, 周⁶⁾, 康¹⁾, 金²⁾, 杜³⁾, 李⁴⁾ 등도 張²²⁾의 原因說을 追從하였다.

朱丹溪¹¹⁾는 諸疝의 原因을 總括하여 內經 以後 歷代醫家들의 說과는 달리 “濕熱 痰積流下作病 大概因寒鬱而作 即是痰飲食積并死血”이라 하여 原因을 主로 寒과 痰飲, 食積, 死血로 보았

〈丑 1〉 寒疝의 原因(*表는 疝證의 原因임)

書 名	原 因
1. 黃帝內經	*寒氣結積之所爲也
2. 諸病源候論	陰氣積于內則衛氣不行, 衛氣不行則寒氣盛也
3. 外臺秘要	得寒冷食輒極
4. 儒門事親	得之于坐臥濕地, 寒月涉水, 或值雨雪, 使內過勞
5. 醫學綱目	4번과 同一
6. 丹溪心法附餘	濕熱痰積流下作病, 大概因寒鬱而作即是痰飲食積死血
7. 醫學正傳	4번과 同一
8. 東醫寶鑑	4번과 同一
9. 證治彙補	坐臥濕地, 寒月涉水冒雨, 勞碌熱極, 使內過勞而得
10. 徐靈胎醫書	*飲食寒濕不調理之所生
11. 醫宗金鑑	寒濕內蓄日已深, 復被風, 冷水氣浸
12. 醫門寶鑑	內傷房勞, 外侵寒濕之致也
13. 濟衆新編	得於寒濕, 使內過勞
14. 雜病廣要	2번과 同一
15. 袖珍經驗神方	4번과 同一
16. 診療要鑑	4번과 同一
17. 太韓醫學全集	4번과 同一
18. 東醫腎系學	4번과 同一

고, 李²⁶⁾는 本은 濕熱 標則寒이라 하였고, 徐¹³⁾도 亦是 “飲食 寒濕不調理”라 하여 朱丹溪¹¹⁾와 類似한 病因으로 寒疝이 發生한다고 보았다(〈表 1〉 參考).

2. 寒疝의 症狀

《黃帝內經》²¹⁾에서는 寒疝의 症狀을 特別히 定義하지 않고, “病在少腹, 腹痛不得大小便”하여 疝證의 症狀으로 包括되게 言及하였고, 《金匱要略》²⁴⁾에서는 “寒疝繞臍痛, 若發則自汗出, 手足厥冷, 其脈沈緊”이라 하여 寒疝이라는 名稱을 最初로 使用하였으며, 巢¹⁴⁾는 最初로 七疝을 區分하여 寒疝의 症狀을 “身上罷冷 不欲飲食 手足厥冷 繞臍痛 自汗出 遇寒即發”이라 하였고, 王¹⁸⁾은 臍下堅痛이라 하였다.

그 後에 張²²⁾에 이르러 寒疝의 症狀을 “囊冷結硬如石, 陰莖不舉, 或控舉丸而痛”이라 하였고, 徐¹⁸⁾는 “脇下腹中盡痛 逆冷 手足不仁”이라 하였으며 吳¹⁵⁾는 “囊冷結硬 牽引小腹作痛”이라 하였으며, 李²⁶⁾는 寒疝의 大綱을 囊痛 引小腹이라 하였고, 其他 諸家 樓¹²⁾, 虞¹⁶⁾, 許⁷⁾, 李¹⁹⁾, 周⁶⁾, 康¹¹⁾, 李⁴⁾, 金²⁾, 李⁵⁾, 杜³⁾들도 張²²⁾의 記錄을 追從하였다(〈表 2〉 參考).

〈표 2〉 寒疝의 症狀(*表는 疝證의 症狀임)

書名	證狀
1. 黃帝內經	*病在小腹, 腹痛不得大小便
2. 金匱要略	繞臍痛, 若發則自汗出, 手足厥冷, 其脈沈緊, 腹中痛, 脇痛裏急
3. 諸病源候論	身上罷冷, 不欲飲食, 手足厥冷, 繞臍痛, 自汗出
4. 外臺秘要	臍下堅痛
5. 儒門事親	囊冷結硬如石, 陰莖不舉, 或控舉丸而痛
6. 醫學綱目	5번과 同一
7. 丹溪心法	*舉丸連 小腹急痛
8. 醫學正傳	5번과 同一
9. 東醫寶鑑	5번과 同一
10. 證治彙補	囊冷結硬如石, 陰莖不舉, 脛痛引丸
11. 徐靈胎醫書	脇下腹中盡痛, 逆冷, 手足不仁
12. 醫宗金鑑	囊冷結硬, 牽引小腹作痛
13. 醫門寶鑑	3번과 同一
14. 濟衆新編	囊冷硬如石, 陰莖不舉, 或控舉丸而痛
15. 雜病廣要	3번과 同一
16. 袖珍經驗神方	5번과 同一
17. 診療要鑑	5번과 同一
18. 太韓醫學全集	5번과 同一
19. 東醫腎系學	5번과 同一

3. 寒疝의 治方

疝의 治方은 張仲景의 《金匱要略》²⁴⁾에서 大烏頭煎, 當歸生薑羊肉湯을 提示한 것이 最初인데, 以後에 張²²⁾이 溫劑下之하는 舟車丸, 豬腎散 等の 處方을 提示하였다.

朱丹溪¹¹⁾는 痰飲食積 死血을 諸疝의 原因으로 보았으므로 割痰 消積 破血의 治法을 提示하였다. 許⁷⁾는 蟠蔥散, 烏頭桂枝湯, 禹功散을, 李¹⁹⁾는 溫經散寒하는 參附薑桂之劑를, 徐¹³⁾는 烏頭桂枝湯, 大烏頭湯을, 吳¹⁵⁾는 解表溫中之劑를, 周⁶⁾는 當歸四逆湯, 木香金鈴丸 等を, 康¹⁾은 五積散加吳茱萸를, 金²⁾은 青木香元, 蟠蔥散, 當歸四逆湯을, 李⁵⁾는 煖肝煎, 當歸四逆湯類를, 最近에 杜³⁾는 蟠蔥散, 當歸四逆湯, 五積散等の 處方을 提示하였다(〈表 3〉 參考).

〈표 3〉 寒疝의 治法 및 治方

書 名	치 법 및 치 방
1. 黃帝內經	해당 기록 없음
2. 金匱要略	大烏頭煎 當歸生薑羊肉湯
3. 諸病源候論	해당 기록 없음
4. 儒門事親	溫劑下之 豬腎散 舟車丸
5. 醫學綱目	4번과 同一
6. 丹溪心法附餘	割痰 消積 破血
7. 醫學正傳	4번과 同一
8. 東醫寶鑑	溫劑下之 蟠蔥散 烏頭桂枝湯 禹攻散
9. 證治彙補	溫經散寒 參附干桂之劑
10. 徐靈胎醫書	烏頭桂枝湯 大烏頭煎
11. 醫宗金鑑	解表溫中 烏頭桂枝湯
12. 醫門寶鑑	4번과 同一 當歸四逆湯 木香金鈴丸
13. 濟衆新編	五積散 加 吳茱萸
14. 雜病廣要	해당 기록 없음
15. 袖珍經驗神方	4번과 同一
16. 診療要鑑	青木香元 蟠蔥散 當歸四逆湯
17. 太韓醫學全集	4번과 同一 煖肝煎 當歸四逆湯
18. 東醫腎系學	蟠蔥散 五積散 當歸四逆湯

Ⅲ. 考 察

內經에서는 疝證을 原因과 症狀에 따라 17種으로 區分하였으나, 이중에 寒疝에 對한 仔細한 內容은 言及되지 않았으며, 但只 〈素問：長刺節論〉²¹⁾에 “病在少腹，腹痛不得大小便，病名曰疝，

得之寒 遇寒即發”이라 하여 寒疝의 原因과 症狀에 類似한 內容을 言及하고 있다.

張仲景의 《金匱要略》²⁴⁾에서 寒疝의 病機 症狀 治方에 對해 最初의 記錄을 남겼으며, 巢¹⁴⁾의 《諸病源候論》에서 七疝에 對한 最初의 記錄이 보이는데 巢는 七疝을 厥疝, 癢疝, 寒疝, 氣疝, 盤疝, 臍疝, 狼疝으로 區分하였다. 그 後 金代의 張²²⁾이 著述한 《儒門事親》에서 疝證을 寒疝, 水疝, 筋疝, 血疝, 氣疝, 狐疝, 癢疝의 七種으로 區分하고 各各의 症狀과 治方을 正確하게 記錄하였으며, 以後 諸家들은 大概 張²²⁾의 分類를 追從한 바가 많다.

寒疝의 原因에 對해 金匱要略²⁴⁾은 具體적으로 言及한 바는 없으나 邪正相搏하여 寒疝이 發한다고 그 病機의 一端을 밝혔다. 이에 對하여 巢¹⁴⁾는 “陰氣積于內則衛氣不行, 衛氣不行則寒氣盛也”라 하여 《金匱要略》²⁴⁾이 提示한 寒疝의 病機와 原因을 仔細히 分析하였다. 以後 張²²⁾은 “得之于坐臥濕地, 寒月涉水, 或值雨雪, 使內過勞”이라 하여 內傷房勞, 이라 하여 內傷房勞, 外侵寒濕으로 寒疝이 發한다고 보았다. 以後로 樓¹²⁾, 虞¹⁶⁾, 李⁹⁾, 許⁷⁾, 吳¹⁵⁾, 周⁶⁾, 康¹⁾, 李¹⁹⁾, 金²⁾, 李³⁾, 杜³⁾ 등 大部分의 醫家들 이를 準用하였다. 張²²⁾의 原因說은 內經의 疝證에 對한 原因說에 影響을 많이 받은 것으로 主로 寒濕邪가 肝經, 任·督脈經에 侵入하여 寒疝이 寒疝이 發生하는 것으로 把握하고 있다.⁸⁾

한편 朱丹溪¹¹⁾는 寒邪, 濕邪 以外에도 痰飲, 食積, 死血 等도 諸疝의 原因으로 提示하면서 主로 寒鬱로 因하여 發病한다, 하였는데, 여기에서 諸疝은 主로 寒疝을 指稱한 것으로 생각되어지며, 또한 疝證은 대개 定處가 있는 것으로 보아 痰飲 食積 死血 등 有形의 病體가 分明하다고 생각한 것⁹⁾으로 思慮된다. 李²⁶⁾ 또한 《醫學入門》에서 疝의 本은 濕熱이고 標末은 寒冷이라고 하여 醉飽와 勞役과 房慾과 憤怒로 動火하여 火鬱이 久則生濕하고 津液이 凝爲痰瘀하여 流入肝經이면 肝性에 因래 急速한데다 또 急性的으로 外寒이 侵入하여 束縛하기 때문에 疝症이 甚하게 되며 原因은 오로지 寒이라고 말하는 者가 有하나 이는 標를 論함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아 病機를 說明하였다. 最近에 杜³⁾는 疝에 相應된 疾患인 精囊炎, 副睪丸炎, 睪丸炎, 精系捻轉, 停留睪丸, 精系靜脈瘤, 類生殖器結核 等의 原因으로 邪氣가 肝經에 侵入하여 肝經에 濕熱이 內生하여 蘊蓄함으로 發한다고 보고 濕熱, 濕痰, 瘀血의 結聚, 寒氣凝結, 房勞, 勞傷, 鬱火 등으로 發病한다고 보았다.

寒疝의 症狀에 對한 最初의 記錄은 《金匱要略》²⁴⁾에 나타나는데 “繞臍痛, 若發則自汗出, 手足厥冷, 其脈沈緊” “腹中痛脇痛裏急”이라 하였고, 巢¹⁴⁾는 “身上罷冷, 不欲飲食, 手足厥冷, 繞臍痛, 自汗出”이라 하였으며, 張²²⁾이 “囊冷結硬如石陰莖不舉 或控睪丸而痛”이라 한 以後에 後代의 諸家들은 大概이 內容을 따랐다. 李¹⁹⁾는 張²²⁾의 症狀에 脛痛引丸이란 症狀을 追加하였으며, 徐¹³⁾는 張²²⁾과 달리 “脇下腹中盡痛 逆冷 手足不仁”이라 하여 《金匱要略》²⁴⁾의 內容을 따랐다. 特히 吳¹⁵⁾는 “囊冷結硬牽引少腹作痛”이라 하여 寒疝의 症狀에 少腹痛을 追加하였다.

以上 諸家들의 寒疝의 症狀에 對해 記錄한 바를 살펴보면 張²²⁾ 以前에는 寒疝의 主症狀을 上下腹痛 및 關聯症狀으로 본 反面, 張²²⁾ 以後의 醫家들은 前陰部 症狀으로 觀察한 差異가 나타

난다.

西洋醫學에서 精囊炎의 症狀이 辜丸連少腹痛, 腎痛 陰莖射精時疼痛 등이 나타나며 副辜丸炎인 境遇에 腫脹, 硬結 등의 症狀이 나타난다. 辜丸炎인 境遇 陰囊內容物이 腫脹, 不快感이 有하며 疼痛하고 精管 精系가 腫脹해서 牽引痛 壓痛 下腹部痛 등의 症狀이 나타난다. 故로 上記 症狀이 大概가 寒疝의 “陰囊結硬如石하고 控辜丸而痛”이라는 症狀과 類似한 바가 많아 本人의 所見으로는 위의 諸 症狀이 寒疝의 症狀과 類似하고 日久하였을 때에 더욱 寒疝의 症狀과 類似하다고 判斷된다.

寒疝의 治法, 治方に 있어서 金匱要略²⁴⁾에 辛溫之劑인 大烏豆煎, 當歸生薑羊肉湯이 記錄된 以後, 張²⁵⁾은 溫劑下之의 治法과 아울러 治方으로 舟車丸, 豬腎散을 提示하였는데, 李¹⁹⁾는 溫經散寒, 吳¹⁵⁾가 解表溫中이라는 治法을 提示하였으나 이들의 主張은 張²²⁾과 表現만 다를 뿐 辛溫之劑로 溫散하는 治標法에 該當된다. 歷代醫家들은 原因을 本은 濕熱이요 標는 寒으로 보고 辛溫之劑로 溫散하는 治標法을 多用하였는데 大烏豆煎 烏豆桂枝湯 當歸四逆湯 煖肝煎 蟠蔥散 등의 治方이 頻用되었다.

그러나 丹溪는 痰飲 食積 死血 등이 肝經에 流入되어 寒疝을 惹起하는 것으로 보고 辛平之劑로서 割痰 消積 破血을 爲主로 하였으니 이것은 治本法에 該當된다.²⁾ 治本法에 頻用된 治方은 五積散加吳茱萸였다.

IV. 結 論

寒疝의 原因 症狀 治法 및 處方을 文獻의 으로 考察한 結果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寒疝의 原因은 寒邪·寒濕으로, 《儒門事親》에서 “得之于坐臥濕地, 寒月涉水, 或值雨雪, 使內過房”이라 한 以後에 歷代 醫家들이 대체로 이를 受容하였으며, 그 밖에 痰飲 食積 死血 房勞 等도 提示되었다.
2. 寒疝의 症狀은 《儒門事親》以前에서는 腹痛 및 腹部 關聯症狀(繞臍痛, 不欲飲食, 手足厥冷, 腹中痛, 脇痛裏急 等)으로 생각하였고, 《儒門事親》以後에는 主로 前陰部症狀(囊冷結硬如石, 陰莖不舉, 或控辜丸而痛, 辜丸連小腹急痛)으로 보았다.
3. 寒疝의 處方은 各 醫家에 따라 多樣한 治法 및 處方이 提示되었으나 主로 治標法인 辛溫之劑로 溫散하는 蟠蔥散 五積散 當歸四逆湯 烏豆桂枝湯 煖肝煎 等이 頻用되었다.

參 考 文 獻

1. 康命吉: 濟衆新編, 서울, 杏林書院, 1971, pp. 156~159.

2. 金定濟：診療要鑑，서울，東洋醫學研究院，1974，pp.432~433.
3. 杜鎬京：東醫腎係學，서울，東洋醫學研究院，1991，pp.621~630，688~704.
4. 李麟宰：袖診經驗神方，서울，癸丑文化社，1982，pp.116~119.
5. 李正來：太韓醫學全集，서울，第一文化社，1989，pp.1844~1849.
6. 周命新：醫門寶鑑，서울，杏林書院，1971，pp.252~259.
7. 許 凌：東醫寶鑑，서울，南山堂，1976，pp.310~314.
8. 金哲中：水疝에 對한 文獻的 考察，慶熙大學院，1991.
9. 杜鎬京：疝의 考察，서울，東洋醫學研究院，1983.
10. 姚香雄：症狀鑑別手冊，臺北，協和醫藥出版社，pp.196~208.
11. 方 廣：丹溪心法附餘，서울，大星文化社，1982，pp.603~612.
12. 樓 英：醫學綱目(卷十四)，臺南，北一出版社，pp.9~40.
13. 徐靈胎：徐靈胎醫書，臺北，五洲出版社，1970，pp.146~148.
14. 巢元方：諸病源候論校釋，北京，人民衛生出版社，pp.600~607.
15. 吳 謙：醫宗金鑑，서울，醫道韓國社，pp.67~69.
16. 虞 搏：醫學正傳，서울，成輔社，1986，pp.201~207.
17. 陸青節：萬病醫藥顧問，香港，中醫叢書，pp.184~191.
18. 王 燾：外臺秘要，서울，成輔社，1975，p.211.
19. 李用粹：證治彙補，香港，萬葉出版社，pp.389~396.
20. 林佩琴：類證治裁，臺北，旋風出版社，1978，pp.442~448.
21. 張隱庵，馬元臺：黃帝內經，서울，成輔社，1975，pp.53~55.
22. 張從正：儒門事親，河南，河南科技，1984，pp.139~150，402~403.
23. 程國彭：醫學心悟，臺北，文光圖書有限公司印行，pp.189~190.
24. 湖北中醫學院編：金匱要略講義，香港，醫學衛生出版社，1977，pp.98~99.
25. 丹波元堅：雜病廣要，서울，成輔社，1986，pp.345~369.
26. 李 梴：編註醫學入門(IV)，서울，崇文社，1974，pp.341~352.